

#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서 이뤄내야”

## 오월, 모두의 정신으로

〈4·完〉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정안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5·18정신헌법전문 수록국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상임대표를 맡아온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 이번 무산의 교훈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지난 7·8일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혔어야지, 표결 자체



를 외면한 것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다만, 이번 무산을 국민의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 합의의 마련에 충분히 나서지 못한 책임도 크다. 정치권 전체가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선거운 구호’로만 소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개헌 ‘국민추진위’ 상임대표 역임

최근 “개헌 무산 정치권 책임” 강조

특위 구성 등 후반기 준비 철저必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폭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증거다.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냈다.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예우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떤 희생과 저항 위에 세워졌는지를 국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국민추진위의 역할은.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단순히 문구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이 담긴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5·18을 민주 헌정질서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게 된다. 왜곡과 폄훼 역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 국회에 개헌안이 다시 상정되기까지 과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못하도록 국민 여론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민 5·18 인식조사’에서도 67.3%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 정당

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5·18을 지역의 아픔으로만 가둬서는 안 된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가 어떤 희생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미디어를 통한 전국적 공론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국민추진위의 역할은.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단순히 문구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 헌정 가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물론 5·18당사자,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추진위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국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정치권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5·18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다. 이제 정치권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과 정신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리고 싶다.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시 힘을 모아 반드시 이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연상 기자

## ‘5·18 암매장’ 광주 효령동 일대 발굴 시작

개토제 개최...과거 공동묘지 주변 1천㎡

오는 21일까지 시굴 등 내달까지 작업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13일 오전 9시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에선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주최,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유해 발굴에 앞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조사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가 진행됐다.

개토제에는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박용범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월 영령을 기리는 묵념과 술잔을 올리는 제례 후 기념재단은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은 1980년 이전부터 공동묘지로 쓰였는데, 재단은 지난해 5월 삼을 든 군인들이 피 묻은 마대를 옮기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면적 2천140.8㎡ 중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약 1천㎡에 대해 발굴을하기로 결정했다.

발굴 작업은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고, 문화유



13일 오전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에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개토제가 진행된 후 조사관과 작업자들이 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영권기자

산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시굴조사와 정밀발굴 조사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시굴조사는 일정 구간을 30-50cm가량 파내 지층 변화와 굴착 흔적 등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유해가 발견될 경우 정밀발굴로 전

환되며 관할 경찰서가 범죄 혐의점 유무를 우선 판단한다. 혐의점이 없을 시 유해 수습과 기초감식, DNA 시료 채취, 행방불명자 가족과의 대조 작업을 실시한다.

시굴조사를 마친 후에는 파내는 범위를 넓혀가는 등 정밀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연상기자

## 美 인권단체 발간 ‘5·18 참상’ 46년만에 공개

故 패리스 하비 목사 이끈 북미연맹

23쪽 분량의 ‘광주로부터의 보고’

계엄군 만행·조대 학생들 진술 등

1980년 오월 광주의 참상을 기록한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5·18민주화운동 46년 만에 공개됐다.

최용주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은 13일 ‘한국인권을 위한 북미연맹’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이 발간한 ‘광주로부터의 보고’ (Reports From Kwangju)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5·18 당시 광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북미연맹

이 이를 하나로 엮어 영문으로 발간한 것이다. 분량은 총 23쪽이며, 한국인 기자의 증언, 조 선대 학생들의 진술, 사건 연표 등이 실렸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공수부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트럭에 실려 옮겨지던 상황이 기록됐다. 또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담겼다.

최 전 과장은 지난 2018년 연구 목적의 자료 수집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를 방문했다가 이 소책자를 발견했고 사진으로 촬영했다. 그러다 지난달 북미연맹을 이끌었던 패리스 하비 목사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연상기자

## 경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손훈모 후보 캠프 압수수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의혹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

해당 파일에는 손 후보의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가 ‘5개’, ‘10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나는 대화가 담겼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고 전남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 다. /안재영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 건강검진

##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